

매체 소개서

법 인 명	㈜ 이원컴	설 립 일 자	2000년 8월 3일
제 호 명	폴리뉴스	매체창간일자	2000년 8월 10일
사업장 소재지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층		
도 메 인 주 소	(PC) www.polinews.co.kr (Mobile) m.polinews.co.kr		
주력 콘텐츠 분야	<p>2000년 8월 'e원컴 정치뉴스'로 시작한 폴리뉴스는, 국회를 비롯한 정치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동시에, 유력 정치 지도자들과 평론가들이 참여하는 인터뷰, 좌담회, 대담, 칼럼, 그리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각종 정치 이슈에 대한 분석과 정국 전망 콘텐츠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p> <p>또한 2015년부터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모토로 국내외 경제 동향 및 금융, 산업, 유통, 건설부동산 등 경제 전 분야의 기사를 담아내고 있으며, 포럼 개최와 전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경제사회 전반의 주요 변화 이슈를 대상으로 발전적인 아젠다를 발굴하고 실천 역량을 이끌어내는 데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p> <p>최근에는 유튜브 채널인 폴리TV를 통해 각종 동영상 콘텐츠를 제공하는 등, 서비스 저널리즘을 실천하는 인터넷 종합미디어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p>		

1.

24년 역사의 정치 커뮤니케이터

폴리뉴스의 역사는 정치와 국민을 연결하는 정치대중화의 기록

- ▶ '정치를 바꾸자'는 기치 아래 창간한 인터넷신문 1세대
- ▶ 일간지 기자들이 먼저 보는 정치 뉴스
- ▶ 대선, 총선, 지방선거 등 선거 특집사이트 개선을 통한 분석과 전망 제공
- ▶ 유력 정치 지도자들과 평론가들의 담론장

관련 주요 연혁

2020년 08월 창간 20주년 '국회 중심 뉴스룸' 선언
 2009년 08월 자매지 월간 <폴리피플> 창간 (현재 통권 154호 발간)
 2007년 11월 제17대 대선후보 초청 인터넷토론회 주관
 (인터넷신문협회 주최)
 2005년 04월 폴리뉴스로 제호 변경
 2002년 11월 제16대 대선후보 초청 인터넷토론회'천만 국민과의 대화' 주관
 2000년 08월 인터넷신문 'e원컴 정치뉴스' 창간



<17대 대선 후보 초청 인터넷토론회>

2.

정론직필의 서비스 저널리즘

시민의 알 권리와 민주주의 가치에 헌신하는 책임있는 매체

- ▶ 정치적 편향성을 배제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에 기초한 정론직필 지향
- ▶ 여야 정치인 모두에게 신뢰받는 매체
- ▶ 진보와 보수의 부침이 교차하는 격변의 정치현장을 가감없이 전달
- ▶ 시민사회의 건전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공론장 제공
- ▶ 디지털 및 미디어 기술의 발전을 적극 수용

관련 주요 연혁

2021년 10월 '폴리뉴스를 보면 대선이 보인다' 제20대 대선 뉴스룸 개설
 2019년 01월 폴리TV 유튜브 채널 본격 운영 개시
 2012년 06월 사이트 전면 개편 및 모바일 웹·어플 개발 오픈
 2008년 01월 총선 특집 사이트 운영
 2006년 04월 국내 최대 다단계업체 JU의 전방위 로비사건 단독 특종 보도
 2006년 03월 지방선거 특집 사이트 운영

▶ '상생과통일포럼' 창립 및 운영 주도

사회의 극단적 경향을 경계하고, 개혁적 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지향하는 여야 정치인과 산업계 언론계 학계 등 다양한 영역의 중추적 인사들이 소통하고 교류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출

▶ 리더십 최고위 과정 운영

동국대 언론정보대학원과 공동운영, 1~8기 졸업생 배출

▶ 전문가 인터뷰를 통한 책임있는 정보의 공유 확대

정치·경제·사회 전반의 주요 변화이슈 및 아젠다 관련

관련 주요 연혁

2014년 11월 제2차 통일심포지움 '격동의 한반도, 통일로 가는 길' 개최

2014년 6월 상생과통일포럼 발족 공동대표 정세균, 정우택, 최창섭
 상임운영위원장 김능구

☞ 현 공동대표 설훈, 정진석, 김영태

2013년 09월 리더십 최고위과정 개설.

폴리뉴스·동국대학교언론정보대학원 공동



▶ 산업 및 경제 이슈의 공론화 기회 제공

포럼, 정책간담회 행사 매개로 정관계와 재계, 기업의 공감대 육성

▶ 객관화된 데이터 중심의 보도

지속가능한 경제·기업의 성장을 지원

▶ 블루오션 시장의 개척과 선점 전략 지원

▶ 신사업 론칭 및 스타트업 성장 지원

관련 주요 연혁

2023년 11월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개최

2021년 10월 제17차 경제산업포럼 'K-ESG의 실천과 정착 방안'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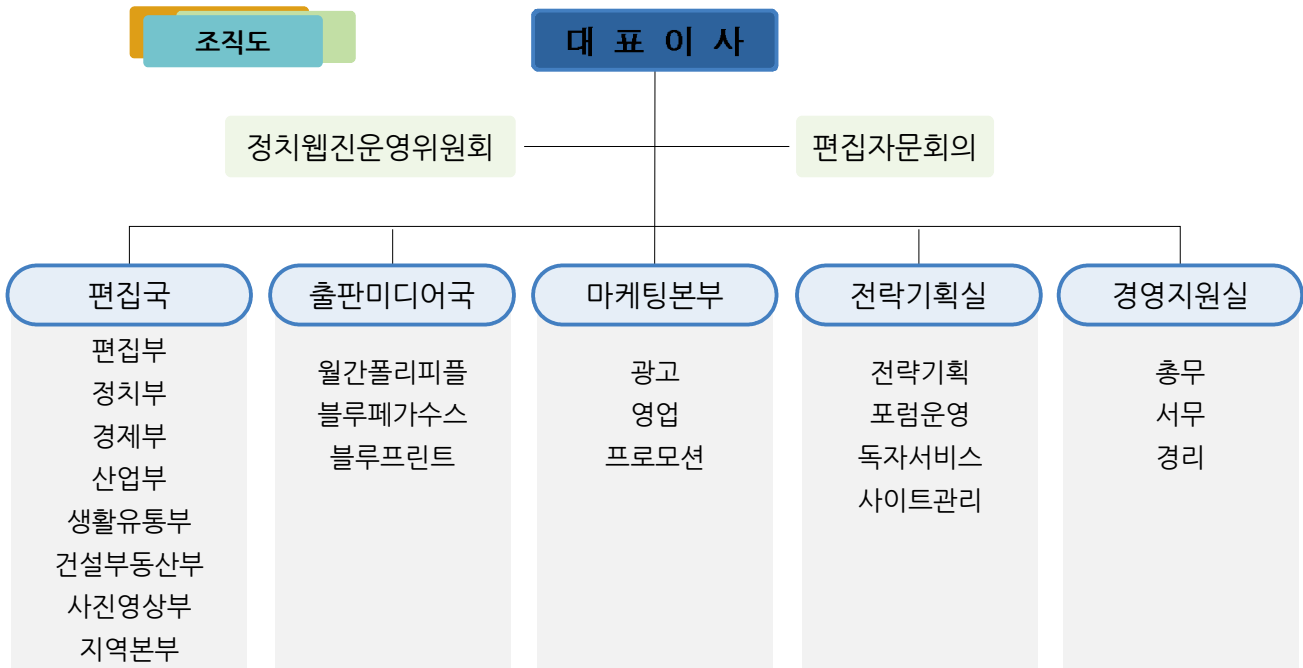
2015년 03월 제3차 경제금융 심포지움 '글로벌 경영환경 변화와 국내
 금융산업 발전전략' 개최

2015년 01월 "정치와 경제의 만남"을 기치로 제2창간 선언



II

조직도 및 취재인력 현황



- 24년 2월 현재, 취재 및 편집인력 총 22명 (취재 19명, 편집 3명)

III

저널리즘 품질

1.

정치와 경제 분야 중심의 정제된 기사

보도 분야별 기사건수 및 비중

(2023년 1~12월 누계 기준)

구분	계	정치	경제	사회	지방	기타
기사건수	23,810건	6,292건	9,213건	1,924건	3,141건	3,240건
비중	100%	26.4%	38.7%	8.1%	13.2%	13.6%

- 월평균 기사 수 1,984건
- 정치와 경제 분야 중심(기사 비중 65% 수준)의 균형잡힌 보도 정책 견지

기획 및 단독취재 기사 비중 20% 수준

- 기획 및 단독취재 기사 비중 2023년 1~12월 중 18.3%
(총 4,363건, 월 평균 364건)
- 정치 분야 기사로 한정하면 21.4% (총 1,344건, 월평균 112건)
- 동 기간 제평위 심사규정 기준 '자체기사' 비율은 약 45% 수준

폴리뉴스 정치 콘텐츠의 차별성

- 1 정치적 편향성 배제
- 2 공정성과 객관성, 현장에 기초한 분석 기초 견지
- 3 계층, 이념, 세대, 지역간 갈등을 넘어서는 상생의 패러다임 지향
- 4 균형 있고 객관적인 담론을 생산하고 공론화에 역점

핵심 콘텐츠

김능구의 정국진단

- ✓ 폴리뉴스의 브랜드 콘텐츠
- ✓ 정치 현상의 심층적 이해와 분석·전망 제공
- ✓ 양당 주요 정치인 인터뷰 중심, 균형잡힌 시각 제공
: 이준석, 이원욱, 하태경, 박지원 등



폴리 좌담회

- ✓ 매월 1회 전문가들이 풀어내는 정치이슈의 심층 분석과 정국 전망 : 김능구 대표 외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 소장
- ✓ 대선 전후 이슈, 4.10 총선 전망 등



김능구·장성철의 직언직설

- ✓ 정치 핫이슈 및 정국 흐름 진단
: 분지 김능구 대표와 장성철 공감과논쟁 정책센터 소장의 대담 형식
- ✓ 월 1회, 2023년 5월 ~ 현재



3. 외부 전문가 참여 공간 확대

“스페셜 인터뷰”

■ 경제사회 전반의 주요 변화 이슈에 대한 관련 전문가 인터뷰
주요 인물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우크라 전쟁과 한반도),
이부영 전 국회의원(총선의 시대적 의미와 전망),
박현도 교수(이팔 전쟁의 원인과 국제 정세),
안병진 교수(美 대선 흐름과 향후 전망),
박정호 교수(민생경제 진단과 해법) 등

“편집자문위원”

■ 국내외 각계 전문가를 편집자문위원으로 위촉
: 칼럼리스트, 포럼·토론회 패널 등으로 참여
고승우, 김만흠, 신창운, 유창선, 이종훈,
정연아, 차재원, 최봉수, 한면희 등

4. 혁신성장 동력 발굴 및 지원 콘텐츠

- 포럼 행사와 연계한 테마별 기획시리즈 기사 제공
 - '23년 11월 국회 기후환경 매니페스토
환경재단과 공동주최
국회 매니페스토단 33인 발족
 - '23년 3.24일 제20차 금융포럼
'한국경제, 혁신성장의 길을 찾아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사전 기획기사 및 전문가 인터뷰 등 기사 제공
- 편집국 내 혁신성장팀 편성 운용
 - 예비IPO, 코스닥 상장사, 주요 스타트업 등 집중 취재
 - '혁신경영리포트', 상생ESG 등 고정 시리즈 기사 제공 예정



5. 독자 편의성·접근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 혁신

폴리TV 콘텐츠의 질적·양적 확충

- 인터뷰, 좌담회 등 정치 콘텐츠의 편집 영상 확대
- 네이버TV와 동영상 제휴 계약 체결, 운영 중

모닝브리핑 제공 대상 지속 확대

- 매일 아침 손 안에 전달되는 뉴스
- 현재 5,000명 제공 중
: 국회의원 전원, 정당 원외위원장, 시도지사기초단체장, 지방의원, 정부 중앙 부처, 기업체 임원, 국회 출입기자 등

공시 자료 중심 데이터 축적 강화

- 실적, 수익·성장·건전성 지표, 제재현황, 취업률, 점유율, 지분율 등
- 데이터 기반의 분석·평가 정보 산출 역량 강화

경제부분 이슈별 기획 취재 지속 확대

- 최근 기사 예시
 '실손보험 적자', '은행 내 횡령', '금리인상과 금융지주 순익 확대' 등

IV

윤리적 실천 의지

정치전문 매체로서 사회적 가치에 대한 보다 엄격한 기준 채택

- ✓ 2005년부터 독자적인 '윤리강령' 제정 및 '독자 권익위원회' 설치 운영
- ✓ 자체적인 성희롱 교육, 개인정보보호법 교육 등 지속 시행

인터넷신문협회 리더그룹 일원으로 업계 차원의 자율규약 서약과 실천에 솔선

- ✓ 2011년 3월 '인터넷신문윤리강령 제정 및 준수서약' 회원사 자격으로 적극 참여
- ✓ '인터넷신문위원회 기사 및 광고부문 자율규약 서약 및 서약서 홈페이지 게시'(2015년 3월)
- ✓ '클린애드플랫폼 캠페인'(2016년 5월) 참여
- ✓ 2021년 1월 '언론윤리헌장' 선포에 인터넷신문협회 회원자격으로 참여

- ☞ 본지 김능구 대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부회장 역임
 : 2007년 1월부터 4년간, 정치분과위원장 겸임
 2022년 5월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정책위원장

다름이 공존하고 상생하는 정치의 공론장

극한 진영대결 구도의 정치 현상 속에서, 갈등을 완화하고 신뢰는 키우는 토론과 공론의 장 확대 제공

기회의 선점과 공유를 실천하는 경제 전문가의 공간

분야별 전문기자 확보 및 데스크 강화, 편집자문위원 등 전문가 네트워크 확충

공동체의 성장 발전에 기여하는 언론

시대전환의 아젠다에 주목하고 다양한 주체들의 성장 발전을 응원하는 저널리즘 본연의 가치를 실천

- 폴리뉴스는 현재 전체 종합인터넷뉴스 매체 중 20위권(랭키닷컴 기준)의 순위를 기록 중임. 포털과의 이슈가 영향을 미치는 결과지만, 그 자체로 20년 이상 지속해온 매체운영의 모든 영역을 재구축하는 계기가 되었음.
- 2022년 9월 폴리뉴스는 포털 제휴를 복원했으며, 본연의 목표와 가치에 충실한 최고의 인터넷종합미디어로 자리매김하는 노력을 지속할 것임